

유월절 (신명기 16:1-8)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유월절'이다. 성경에는 세가지 절기를 강조하고 있다. 그 중에서 유월절이 가장 근본이다. 시작이고 영적으로 근본이다. 은혜받기 바로 중요한 단어를 잡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 바란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순서와 계획이 있다.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진행하는 순서가 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순서에 순종을 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계획 뿐만 아니라 시간표도 모든 피조물에게는 운명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 만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때도 절대적인 것이어서 이 때가 되어지면 안되는 것이 없다. 그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되어서 이것을 막을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피조물은 전부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불신자나 사단, 귀신 다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에게 무조건 다 복종해야 한다. 그런데 이 중대한 시간표가 오늘도 우리를 지나가고 있다. 그 시간표를 오늘도 우리는 살고 있다. 참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그 동안 미국, 남미, 렘넌트, 다민족 이런 단어를 두고 기도한지 10여년이 되었다. 그 동안에 많은 응답을 받고 문도 열리고 했다. 이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온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에 있을 과테말라 집회는 6월 25일부터 시작인데 목사님 제자들을 모아서 하는 집회로는 처음이다. 그래서 중남미 지역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가 될것으로 생각한다. 나라 숫자는 7개정도 된다. 거기서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는 분들중에 참석할수 있는 분을 모았는데 한 40여명 된다. 이제 이 집회를 하는 것은 이 집회가 끝이 아니라 이 집회를 통해서 다음 단계의 선교와 전도를 보고 이것을 하는 것이다. 10월경에는 아르헨티나에서 같은 형태의 집회를 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연결된 분들을 초청하게 된다.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칠레, 볼리비아 등에서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는 분들을 초청하게 된다. 우리 리카르도 호세아스 이 두분 목사님과 그 아래에 올라오는 제자 목사님들이 상당히 돌아다녔는데, 그때 연결된 분들이 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에서도 우리와 같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기 원하는 분들이 일어서고 있다. 아직 남미처럼 많지는 않고 시작이다. 그리고 엔세나다에도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8월 경에는 미국에서 연결되어 있는 목사님들과 엔세나다에 연결된 분들과 같이 리카르도 목사님 선교센터에서 같이 하려고 한다. 그 때에는 로스카보스에 연결된곳, 내가 한번 가고 리카르도가 두 번 가서 연결된 목사님들도 초청할 것이다. 그리고 아리조나의 에디 목사님의 문도 열렸는데, 거기에도 인디언 보호구역의 중요한 제자가 몇명 있다. 그 분들과 함께 그분들 주변에 함께 하기 원하는 분들도 초청해서 함께 엔세나다에서 집회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과테말라 집회에 초청하려고 하는 분 중 두분이 니카라과의 교계 지도자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 분들은 이미 호세아스 목사님이 그 지역을 돌 때에 이미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메시지를 들은 분이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집회에서 만나서 확인하고 니카라과에서도 만일 이런 집회를 할수 있다고 하면 거기서도 해야 한다. 그 때에는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집회를 마치고 올라오면서 들어서 니카라과에서 한번 더 하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그림인데, 이것을 만일 지속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다. 계속 문 열리게 되어 있다. 틀림 없다.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 전과는 다른 문을 열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성도들을 만나는 선교를 했다. 이제는 그것을 하라 수 있는 제자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또 거기 갈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 기도제목이 100팀이다. 현장에 직접 가서 이런 교회와 제자들을 만나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팀 100개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때 지역별로 찾아지는 제자들, 목사님들이 있다. 그 분들과 함께 하는 집회는 내용이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컨텐츠이다. 이 흐름을 타고 우리는 기도로 동참해야 한다. 그래서 정말로 남미 끝까지 가고, 그냥 말이 아니라, 사실은 아무도 미국에 와서 복음의 문을 열은 적이 있다고 봐지지 않은 여기에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될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진짜 100년의 응답이다. 미국의 교회가 어느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서 복음운동한다면 미국 목사들이 그것을 받는가? 안 받는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목사님들 중에서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왜 안 받았느냐 하면 거기에 답이 안되는 것이다. 자기들이 갈급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생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결국은 컨텐츠이다. 방법은 그

다음이고 내용이 바른것이야 한다. 이 내용이면 무조건 되어져야 한다. 방법은 그 다음이다. 전략.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고 믿는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목사, 예를 들어 PH.D가 열명이 와도 전도 안되면 광이다. 자기가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영적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공부는 너무 많이 해서 박사가 열 개 스무개 되어도 옆에 있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못 고치면 그건 광이다. 안그런가? 우리는 시대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누가 영적 문제가 있는데 겁나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가능하면 메시지를 삼십몇분 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안될 것 같다. 자꾸만 할것만 한 것이 아니라 예화들고 그래서 시간이 자꾸 간다. 그래도 이 이야기는 한번 하고 가야 겠다. 내가 평신도로 있을때였다. 교회다닐때였다. 약국을 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완전 정신나간 여성을 데리고 왔다. 런닝만 입었는데 가슴이 나올 듯 말듯하고 밑에는 팬티만 입었다.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권사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주일날 교회를 데리고 왔다. 웃을 입혀서. 그래서 그 때 나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런 찬송들도 처음 들었다. 초신자였기 때문이다. 그 권사님이 소위 기도원파였는데 보혈찬송 불러야 한다면서 뒤에서 소리를 질러댔다. 그래서 보혈찬송 부르고 그랬다. 예배가 끝나고 그 권사님이 약국에 데려와서 나와 같이 갔으니까 예배 후에 당회실에 같이 들어갔다. 장로님들이 앉아 있고 목사님, 그 여성, 나 다 앉아 있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님이 종이에 뭐라고 적더니만 그냥 가버리셨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다. 훌륭한 신학교 졸업하신 분이요. 나도 몰랐다. 어떻게 해야 할지. 복음도 확실히 정리가 안되었지만 복음이면 흑암 무너진다는 말은 들은적도 없다. 미국 교회 이런 말 안한다. 아주 고상하고 수준높은 소리만 하지. 세상에서 가장 수준 높은 소리가 무엇인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깎는 것이 제일 수준 높은 것이다. 원인은 사단이야, 이것이 최고로 수준 높은 소리이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머리는 좋지만 병신이다. 왜 병신인가? 아직도 그걸 모른다. 귀신들려 온 사람 어찌 할줄 모른다, 말이 되는가? 목사가? 낮고 안 낮고는 다음 문제이고 지금 무엇을 해야하는가, 그건 알아야 하는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 답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뭐가 두려운가? 아무리 많은 목사가 달려와도 하나도 두려운 것이 없다. 박사 100개 짜리가 수만명 와도 겁날게 없다.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나가서 하면 전도 인줄 안다. 그것도 전도 맞기는 맞다. 성경적 전도 전략을 알고, 목사는 그 지역의 영적 사령관이 될수 있어야 한다. 답이 딱 나서. 그래야 교회를 이끌어 가고 제자가 붙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다음 다음 단계를 말할수 있어야 한다.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과테말라 집회의 내용은 무엇인가? 아주 바탕이다. 복음은 무엇인가?, 다음 단계 또 있다. 그 다음 단계는 누림. 이것 없으면 진도 안 나간다. 머리에 알고는 있지만 너의 것이 안돼. 그래서 니가 하나님 자녀인데 힘이 없다. 누림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된다. 누림이 없어서. 이것만해도 몇 년 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디 있는지 잘 생각해야 한다. 정말 그리스도냐.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받았냐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누리려고 하나 아니면 다른데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냐,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유월절 잊어버리지 말라, 이것은 이 피가 네 답이야 이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1. 유월절

오늘 말씀은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다. 세 절기중, 제일 중요하고 근본이다. 1절에 보면 아빔월이 나오는데, 이게 한 해의 첫달이다. 그 달에 유월절을 행하기 때문에 첫달, 그 해의 첫달이다. 그 때에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였다. 왜 그러냐면 그날 니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날 피를 바르고 나았기 때문에. 이 피가 생명이다. 이 피가 응답이다. 이 피가 문제 해결이다. 이 피가 뱀의 머리 박살이다. 그래서 그 날 저녁, 너희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평생 이렇게 살고, 잊어버리지 말라. 그 때가 되면 반드시 해야돼. 2절에서는 아무데서나 하지마.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해라. 그것이 성전이다. 그리고 5절에는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이 네게 주신 그 성에서 드리지 말고, 니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너의 동네에서 하지 말고 여기로 오라는 것이다. 6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곳에서 하는데, 언제 하냐면 애굽에서 나왔던 그 같은 시각, 해질 무렵에 하라는 것이다. 최대한 출애굽의 의미를 살리려고. 최대한 그 피의 의미를 살리려고 같은 시간에 하라고 했다. 3절에는 유월절 지키는 일주일은 무교병,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하였다. 이 떡을 고난의 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애굽의 고난, 광야의 고난도 생각하겠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떡을 먹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3절에 니 평생에 절대 이 날을 잊어버리지 말

라. 그 약속의 피의 그날. 그리고 4절에는 누룩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라. 니가 살고 있는 그 지경에는 누룩을 두지도 말고, 일단 그 동안에는 집 바깥에 내놓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유월절에 먹는 고기를 그 다음날 아침까지 두지 마. 그리고 반드시 구워먹어. 예수님이 자기를 태워 번제로 드리셨으니까. 이것은 보통 음식이 아니라, 영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뒀다 먹고 그러면 안돼. 포도주를 예수님이 이것을 내 언약의 피라고 말했다. 그것도 여전히 포도주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 말씀이 들어있는 포도주이다. 이 유월절 어린양 고기도 마찬가지로라. 이것이 유월절에 지켜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유월절은 저주에서 나오는 날, 노예에서 해방되고 운명이 뒤집어지는 날이다. 이 운명이 어린양의 피이다. 이 피를 바르는 그날 대역사가 일어났다. 참 놀라운 일이다. 지구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 지금도 그런일은 만들지도 못한다. 그런데 이 약속의 피가 지금도 유효하다. 이유가 뭐냐면 이 피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 언약의 피가 유효하다. 유효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 아니면 죽는다. 어떻게 죽는가? 사단에게 잡혀 죽는다.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게 잡혀 죽는다. 바보는 바보같이 죽는다. 결론은 다 죽는다. 이게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약속의 피를 매일 발라야 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운명이 뒤집어진다. 교회의 설교를 피로 해서 계속 바르다, 그 교회의 운명이 뒤집어진다. 아까 말한 그런 일을 우리 교회가 계속 한다, 이런 교회가 있겠는가? 미국 교회에 복음의 문을 열고 왜 이런 문제가 오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가겠는가? 나는 만일 우리교회가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진 언약의 피에 대한 고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운명이 뒤집어져서 결국 그 교회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반드시 저주에서 해방이다. 저주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잡고 고백해야 한다. 안되면 연필이 부러지도록 써야 한다. 이것 말고는 답 없다. 안그러는가? 이것 말고는 답 없는데, 이걸 가지고 연필이 부러지도록 쓰지 않는다, 그러면 안된다. 사단 박살나게 되어 있다. 하루 아침에 절대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안되는 일 절대 없다. 반드시 그 날 저녁처럼 계속 되어져 가는 것이다. 10년 15년 30년 지나온 것 보면 꼭 그날 저녁처럼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이런 인생 살아야 한다. 오늘 힘들어도 내일은 답이 있어야 한다. 10년 후에는 내가 정복을 해야지. 그 답이 뭐냐는 것이다. 그 답이 이 피다.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지. 길은 오직 하나, 이것 뿐이기 때문에 쉽고 간단하다. 단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지속이다. 안된다고 중단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답이라는 답이 안 난 것이다. 이 언약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고백하는 일을 시작하고 중단은 안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러면 그 날 저녁처럼 사단이 계속 무너져가는 것이다. 우리 인생 중에서 계속 사단이 무너져 나가는 것이다. 말할 필요 없다. 그냥 계속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된다. 뱀의 머리는 반드시 박살난다고 안 믿어져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어느날 역사 일어나면 그날 믿어지는 것이다. 그 때 갈등을 하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증인으로 말할수 있다. 나도 흔들렸다. 그런데 시작, 중단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래 되었다. 그게 증인이다.

그런데 이 언약의 피제사는 유월절 전에도 있었다. 시작은 창세기 3장 21절이다. 아담과 아벨과 노아와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의 피제사를 이어갔다. 이것이 연결되어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계속 내려오다가 유월절 나왔다. 이 언약의 사람들이 계속 해오던 것이 그날 저녁에 그 피로 나타났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으로 표현된 이 피는 원죄로 인해 나타난 모든 문제, 부작용의 답이다. 이 피는 능히 원죄의 원흉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하나님의 능력이다. 절대 우습게 보면 안된다. 이것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의 바보이다. 이것이 답이다. 사단에 대한 완전한 무기이다. 빨리 안 나 타난다고 낙심할 필요 없다. 여기 안들어 온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는게 좋다. 자기를 위해서. 그 피를 바르는 날 해방되었다. 그 피가 답이라는 증거를 그날 저녁에 꼭 보여줬다.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는 모든 장자, 짐승도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었다. 장자를 죽었다는 것은 이 아들 전부가 내가야 라는 말이다. 바로의 큰 아들도 똑같이 죽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피가 답이다. 그러면 너희 가정은 왜 살았어? 너희 집에도 큰 아들 있잖아? 니 집에도 짐승의 초태생 있잖아, 이 피가 니 답이야. 이 말이다. 이게 언약의 피 권세이다. 이게 십자가의 권세이다. 이것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지속해야 한다. 이 십자가의 언약을 지키면 반드시 정복하고 승리한다. 세상에 무엇을 하던지,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지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있나 물으면 누가 답을 하겠는가? 누구에게 친구든지간에 내 인생이 절대 실패하지 않을 답이 있냐고 물으면 있다고 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 답을 알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 누구를 만나도 말할수 있다. 니 인생이 절대 망하지 않을 답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수 있다. 신명기 15:4-5절에도 거기에 니가 나의 명령을 지키면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조건이 뭐냐면 니가 만일 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에 많이 있다. 다 지키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것을 요약해서 한 개로 말했다. 하나님 명령의 핵심이 이 약속의 피를 지키는 것이다. 우상숭배 하지 않고 이 약속의 피제사를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핵심이고 근본이다. 여기서 나오는 힘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표현된 항목을 다 지킬수가 있다. 이것은 영적인 요구이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 지킨다.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약속의 피를 누릴 때 나온다. 그러면 이것이 모든 명령을 지키는 답인 것이다. 이것이 되면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너희중에 가난하게 될 자가 없을 것이다. 전부터 부하게 살 것이다.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도 여기 있다. 237의 빛도 여기에 있다. 이것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피, 언약의 피. 여기에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을 언약으로 잡기 바란다.

2. 누림

유월절은 언약이다. 피를 바르면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약속이다. 참 간단하다. 피만 바르면 된다. 그리고 너는 그 저주를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정복한다. 니가 피를 바르고 있으면 네게 역사하는 사단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이 피를 발라라, 다르게 아니라 이 피야. 그리고 이것을 너의 인생을 끝내라. 그러면 너에게 다음 축복이 올거야. 그 다음 축복이 오순절, 칠칠절이다.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다. 다음 본문이 설명하고 있다. 5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다. 안식일은 계산하면 49일이 된다. 안식후 다음날이 무슨 날인가? 그게 부활하신 날이다. 이미 구약때부터 부활하신 그 날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성령님 오실 것을 지키고 있었다. 이 언약을 따라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 오신 것이다. 이 성령님이 유월절 언약이 있는 사람에게 오셨다. 이 언약을 가진 자가 성령의 역사를 누릴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언약도 없는데 성령이 왜 가시는가? 성령이 하실 일이 그 언약인데. 그래서 유월절 언약의 피를 누리는 자는 성령의 역사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사도행전 2장이고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그 피를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그러면 사단을 꺾고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운명을 뒤집는 언약이라고 받아야 한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약속을 이루신다. 너희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온 백성이 전부터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미국의 인구가 3억이 넘는데 만일 전부 이 약속을 다 지켜서 가난한자가 한나도 없었다면 가능하겠는가? 가능하고도 남는다. 말씀 하나도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운명이 반드시 뒤집어질것이라는 약속이다.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이다. 가을 길이가 상징하는 구원의 완성이다. 그리고 또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 땅에서도 보좌의 축복을 누릴수 있는 것은 수장절의 약속 때문이다. 이것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당연히 유월절 언약을 누리는 것이다. 언약으로 잡고 고백하고 깊이 기도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게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계속 성경은 말한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이게 성경의 포인트이다. 너는 이 영적인 것에 집중해라. 그러면 다르게 따라온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예배와 이 언약 고백을 계속 해야 할 이유이다. 우리는 이것을 체험해야 한다. 그래야 실제적으로 운명이 뒤집히는 것을 내가 알수 있다. 새로운 응답이 아니다. 다르게 보면 이 운명이 뒤집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언약이 정말 살아 있다는 것을 그 때 알수 있다. 체험 응답, 그래야 살아 있는 증인이 된다. 그냥 말만하는게 아니라 이것이면 된다고 끝까지 말할수 있는 살아있는 증인.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성경에도 많이 있고 본문에도 있고 메시지 안에도 많이 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때가 와서 모든 것이 다 되어지게 되어 있다. 놀랍다. 기도응답을 기도 안했는데도 응답이 되어진다? 놀랍다. 내 인생이 성경이 말한 방향대로 계속 가져, 놀랍지 않은가? 이것 때문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 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써보는 것, 괜찮다. 복음과 관련된 구절을 매일 써본다? 아주 좋다. 그리고 마음으로 깊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도 아주 좋다. 중요한 말씀들을 잡고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는 것, 아주 좋다.

여하튼 알았으면 누려야 한다. 그래야 깊어진다. 안 그러면 내가 안된다. 지속하면 정복된다. 발전되게 되어 있다. 인생도 깊어지게 되어 있다. 정복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다. 계속 운영적 인 것들이 뒤집어지게 되어 있다. 답은 하나이다. 너무나 간단하다. 그 약속의 피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써보라. 누린다, 깊이 고백한다, 사실 잘 안된다. 그러나 쓰는 것은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으로 미국 남미 다민족 할 교회이다. 이 흐름을 타고 함께 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줄 믿는다.